

단위 활동 계획안

실습생 : 이효빈

학급명	사랑반(만 3세)	지도교사	오소현 선생님	일시	2012년 5월 3일 목요일
생활주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주제	가족의 특별한 날	소주제	서로 도와요
활동명	「세 마리 염소」		활동형태	동화	
목표	·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 동화 「세 마리 염소」를 듣고 즐거움을 느낀다.				
교육과정 관련요소	● 사회생활영역 >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 언어생활영역 > 듣기 > 문학 작품 즐겨 듣기				
활동자료	염소가 잠들어 있는 상자, 아기 염소 인형, 엄마 염소 인형, 아빠 염소 인형, 동화 배경 (풀밭, 흙밭, 다리), 동화 표지, 괴물 인형				
시간/활동명	활동목표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
3' 도입		< 아기 염소와 인사 나누기 > 오늘 사랑반에 동물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누굴까요? 그런데 이 동물친구가 우리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희들 중에 누가 이 동물친구를 깨워줄래? “(하품소리)흐아암~ 잘 잤다. 사랑반 친구들아, 안녕?” 우와~ 너였구나! 안녕~ 애들아 이 동물친구 이름이 뭐예요? 아기염소야 그런데 우리 사랑반엔 무슨 일이니? “우리 가족 이야기를 동화로 들려주려고 찾아왔단다~” < 동화 「세 마리 염소」에 관심 가지기 > “동화를 _____에 숨겨두었던단다! 앗, 우리 엄마가 내가 없어진 줄 알고 있겠다!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어~ 사랑반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읽어줘~” ○○랑 □□가 가서 아기염소가 숨겨놓은 동화를 좀 가져올 수 있겠니? 우와 아기염소가 선물한 동화가 이거구나. 이 동화에는 누가 누가 나올까? (아까 아기염소의 가족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아빠염소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일지 동화를 한			* 아기염소가 잠들어 있는 상자 * 간지럼을 태우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기 * 희망하는 아이가 없을 경우 가장 바르게 앉아 있는 아이에게 부탁하기 * 염소 목소리 내기 * 아이들에게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름을 염소에게 직접 물어보기
	· 동화 「세 마리 염소」에 관심을 가진다.				* 활동 시작 전 동화를 숨겨두기 * 아이들이 동화를 가져오는 동안 아기염소는 바구니에 집어넣기

			번 읽어보자.	
5'	전개	·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 동화 「세 마리 염소」를 듣고 즐거움을 느낀다.	번 읽어보자. < 동화 「세 마리 염소」 듣기 > 표지 세 마리 염소 풀밭 아빠 염소, 엄마 염소, 아기 염소가 풀밭에서 살았어요. 아빠 염소는 크고 튼튼한 뿔을 가졌어요. 엄마 염소는 좋은 생각을 잘해 냈어요. 아기 염소는 매~매~귀염둥이였지요. 늪밭 “여기는 이제 먹을 풀이 없어요, 다리 건너 더 넓은 풀밭으로 가서 살아요” 엄마 염소가 말하자, 아빠 염소가 걱정을 했어요. “다리 밑에 무서운 괴물이 사는데 어떻게 건너가지요?” 엄마 염소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말했어요. “아, 그건 걱정 말아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소곤소곤, 소곤소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도 좋아요 엄마” 아빠 염소와 아기 염소는 엄마 염소의 생각처럼 하기로 했어요. 다리 먼저 아기염소가 다리를 건넜어요. “내 다리를 지나가는 게 누구냐?” “나는 아기염소예요”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제발 날 잡아먹지 마세요. 내 뒤에 더 큰 염소가 와요” “그래? 그럼, 얼른 지나가거라” 아기염소는 아무 일 없이 다리를 건넜어요. 다음에는 엄마 염소가 다리를 건넜어요. “내 다리를 지나가는 게 누구냐?” “나는 엄마염소예요”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제발 날 잡아먹지 마세요. 내 뒤에 더 큰 염소가 와요” “글? 그럼, 지나가거라” 이렇게 엄마 염소도 아무 일 없이 다리를 건넜어요. 마지막으로 아빠 염소가 다리를 건넜어요. “내 다리를 지나가는 게 누구냐?” “나는 아빠 염소다!” “옳지, 네가 가장 큰 염소로구나. 너를	* 동화 표지, 동화 배경 (풀밭, 늪밭, 다리) * 아빠 염소 인형, 엄마 염소 인형, 아기 염소 인형, 괴물 인형 * 아빠 염소, 엄마 염소, 아기 염소, 괴물 목소리 흉내내기

			꼭 잡아먹겠다!” “오냐, 덤벼라!” 아빠 염소는 크고 튼튼한 뿔로 괴물을 들이 받았어요. 괴물은 다리 아래 계곡으로 쳤병! 떨어졌 지요. 그리고 아빠 염소도 아무 일 없이 다리 를 건넜어요. 풀밭 아빠 염소, 엄마 염소, 아기 염소는 이제 넓은 풀밭에서 풀을 실컷 뜯어 먹으며 살게 되었답니다! 아참, 괴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괴물은 아빠 염소의 뿔 때문에 이마에 커~다란 혹이 나서 며칠 동안 엉엉~ 울 었대요.	
2'	마무리	·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	동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엄마 염소의 줄~은 생각과, 아빠 염소의 튼~튼한 뿔 덕분에 아기염소 가족은 괴 물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이 동화는 선생님이 책꽂이에 놓아 둘 테니까 또 보고 싶은 친구들은 보세요.	
자 평 가				
지도교사 조 언		안녕하세요! 동화 자료를 제작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여러가지인 동화작업을 해주셔서 감사 아이들로 집중하여 동화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아티스트의 장은 배워가 다른 육아 톨 보라가 있어서 더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		

단위 활동 계획안

실습생 : 이효빈

학급명	사랑반(만 3세)	지도교사	오소현 선생님	일시	2012년 5월 8일 화요일
생활주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주제	소중한 나의 몸과 마음	소주제	어버이날
활동명	하트에 마음을 담아서 선물해요		활동형태	조형	
목표	•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 스텐실 활동을 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교육과정 관련요소	• 사회생활영역 >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 표현생활영역 > 예술적 표현 즐기기 > 조형 활동으로 표현하기				
활동자료	신문지, 수채물감, 스펀지(36조각), 쟁반(5개), 하트 모양판(20개), 종이판(20개), 바구니(6개)				
시간/활동명	활동목표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
5'	도입	< 마음의 모양 생각해 보기 > - 오늘은 무슨 날이지요? - 어제 어버이날 카드 만든 것 기억나나요? - 카드와 함께 어떤 선물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 선생님은 엄마 아빠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무슨 선물이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엄마 아빠가 "우리 딸 마음이 받고 싶네."하고 대답 하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선물로 드려야겠다! 친구들도 마음을 선물하면 괜찮을 것 같니? - 마음은 선생님 가슴 속에, 너희들 가슴 속에 소중하게 들어있는 건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보여주지? - 마음은 어떤 모양일까? (손으로 하트모양을 만든다) - 애들아 이걸 어때? '♡' 마음의 모양 같니? < 여러 가지 느낌의 '하트' 감상하기 > (여러 가지 하트사진을 편집한 ppt를 감상한다) - 아름답고 따뜻하고 예쁜 마음들을 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짝 찰 것 같아요. - 친구들은 하트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니? -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하트를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친구가 있니? -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는 하트를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친구가 있니? -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제 엄마 아빠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그려보자			* 활동을 시작하기 전 각 테이블에 신문을 깔아 놓는다. * 종이판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미리 적어둔다. * 스펀지 바구니에는 비닐을 깔아둔다.
10'	전개	< 스텐실 소개하기 > (하트 모양판을 꺼내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 짠! 애들아 잘 보이니? 선생님의 마음을 보여줄 하트예요. - 지금은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려버렸지만 선생님이 마술을 부리면 이 하트가 예쁜 색깔로 변한답니다. 마술 보여줄까요?			* 컴퓨터, 빔프로젝트, 하트ppt * 손을 든 아이들이 직접 앞으로 나와 하트모양을 만들어보도록 한다.
		< 스텐실 소개하기 > (하트 모양판을 꺼내 아이들에게 보여준다) - 짠! 애들아 잘 보이니? 선생님의 마음을 보여줄 하트예요. - 지금은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려버렸지만 선생님이 마술을 부리면 이 하트가 예쁜 색깔로 변한답니다. 마술 보여줄까요?			* 스펀지바구니, 물감 쟁반, 하트 모양판, 종이 판, 물통을 아이들에게 잘 보이도록 바닥에 진열한다.

		(아이들에게 스텐실 시범을 보여준다) - 자, 우선 이 종이판을 바닥에 두고, 하트 모양판을 그 위에 얹습니다. - 그 다음, 색깔을 고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따뜻한 노랑색 하트를 만들고 싶으니까 노랑색을 할게요. 친구들은 노랑색 말고 다른 색을 해도 되고 물감들끼리 섞어서 더 좋은 색을 만들어도 돼요. -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술도구! '스펀지'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이 스펀지에 노랑 물감을 묻힌 다음 선생님 마음을 후! 붙여 넣을게요. 후~ -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 스펀지를 하트 모양판 위에 살살, 툭툭~ 두드려주세요. - 이제 하트 모양판을 떼어내면, 종이판위에 노랑색 하트가 째!하고 나타납니다. < 약속 정하기 > - 지금부터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스펀지를 툭툭 두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하트 마음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약속을 해야겠지요. 오늘은 어떤 약속을 해야 할까? - 맞아요. 오늘 선생님이 물감을 나누어 줄건데 물감은 스펀지와 종이판에만 묻혀야 합니다. 물감으로 옆의 친구에게 장난치면 절대 안 돼요~ - 그리고 한가지 더 있어요. 책상위에 물통을 올려놓을 건데요, 물을 쏟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 모둠별로 앉아 재료 나누기 > (나비가족, 애벌레가족, 개구리가족 자리로 간다) - 오늘 도우미 친구가 나와서 물감쟁반과 스펀지 바구니를 갖다주세요. < 모둠별로 스텐실 활동하기 > - 이제 친구들이 직접 멋지고 예쁜 하트를 만들어 보세요.	* 아이들에게 잘 보이도록, 천천히 스텐실 시범을 보이도록 한다. * '약속'을 지키며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종이판과 물통은 선생님이 직접 나눠주도록 한다 * 물감을 섞어 여러 가지 색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한다. * 하트 마음을 다 만든 친구는 주변 정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5'	마무리	< 자신이 만든 작품 발표하기 > (이야기나누기 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 선생님이 지금 쪽 둘러보니까 사랑반 친구들 전부 다 너무 따뜻한 마음들을 만든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자기가 만든 하트 마음을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어버이날 카드와 함께 친구들이 만든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엄마 아빠에게 전해드리세요.	* 아이들의 작품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다.
자 평	기 가	이번 조형 활동은 아이들의 수준과 사랑반의 생활주제, 그 어느 것과도 섞이지 못하고 완벽하게 괴리된 활동이 된 것 같아 속상하다. 우선 내가 제시한 물감의 농도가 가장 큰 문제였다. 스텐실 종이판과 모양판을 일부러 작게 제시하여 아이들이 그 모양을 살리기가 더욱 힘들었을 텐데, 물감의 농도까지 너무 묽어 하트 모양은커녕 모양판 안 밖으로 물감이 스며들어 그냥 스펀지 도장만 남발하는 활동이 되었다. '선생님 이거 하트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실망스러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의 활동들(특히 조형 활동)은 아이들과 함께 해보기전에 내가 먼저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보아야 한다는 참 깨달음을 얻었다.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던 깨달음이지만 '이 정도는 해낼 수 있겠지'하는 나만의 착각이 모든 일을 그르치는 것 같다.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대하여 늘 경손하고도 열린 마음으로 연구를 해야 하며 이 생각이 아이들의 발달 행동에까지 닿아 융통적으로 여러 상황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스텐실 활동 자체에 대한 주의정도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에 또 다시 아이들	

	과 스텐실 활동을 한다면 그 때에는 물감의 농도를 너무 묽지 않게 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작은 모양판을 주지는 말아야겠다. 또한 아이들이 나의 기대처럼 스펀지에 적당한 물감을 묻혀 가볍게 툭툭 치는 것이 아니라 물감에 스펀지를 푹 절여 스펀지의 모양이 뭉개질 정도로 크게 누를 수도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겠다. 다시 한 번 생각해도 이상하다. 활동을 계획할 당시에는 아이들이 물감을 알맞게 잘 조절하여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한편 사랑반의 생활주제와 괴리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트모양으로 표현해보자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나만의 생각이라 아이들에게는 가닿지 않았다. 덕분에 하트는(물론 하트모양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의미를 가지지 못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활동이 계속 해오던 생활주제와는 맞지 않은 '특별활동' 정도로 여겨졌을 것 같다. 이러한 전조는 활동을 시작한 도입부분에서부터 느껴졌다. '어버이날'이나 '마음', '하트'에 대한 나의 예상 피드백 대신 고개를 갸우뚱 거리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나 역시도 이 활동 속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이끌어주지 못해 미안하고 속상하다. 아이들은 원래 물감을 워낙 좋아하니 지루한 전개가 되지는 않았을 테지만, 아이들이 활동의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교과지식이 신체화 되어 아이들에게 스며들기를 바라는 예비교사의 입장에서는 슬픈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하여 느낀바들을 잊지 말고 다음 수업을 준비 할 때에 늘 떠올려 오늘과 같은 실수를 줄여나갈 것이다.
지도교사 조 언	수업 준비하신다니 수고 하셨습니다. ^^ 유치 원생들에게도 적용했지만 도입부분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하트모양을 제시하여 아이들 흥미를 유발할 것 같습니다. 물감의 농도나 스펀시 모양들은 사전에 충분한 연습을 바른 스펀시 모양은 아취양과 남습니다. 각각의 주상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도는 칭찬합니다. 적응부터 다양한 교사는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라지 아세요. ^^ 늘어서 !!

단위 활동 계획안

실습생 : 이효빈

학급명	사랑반(만 3세)	지도교사	오소현 선생님	일시	2012년 5월 11일 금요일
생활주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주제	소중한 나의 몸과 마음	소주제	전통문화 다도교육
활동명	나의 몸을 소개해보아요		활동형태	음률·동작	
목표	- 신체 각 부분의 이름과 기능에 관심을 가진다. - 몸을 조절하여 움직인다. - 노래를 즐겁게 부른다.				
교육과정 관련요소	- 표현생활영역 > 예술적 표현 즐기기 > 음악으로 표현하기 - 건강생활영역 > 나의 몸 인식하기 > 나의 몸 인식하고 움직이기				
활동자료	피아노,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파일, '머리 어깨 무릎 발' MR파일, 노래판(여자아이전신, 신체이름카드), 검정색 매직, 빈 카드, 제목카드 머리 어깨 무릎 발 작사 미상 외국 곡 				
시간/활동명	활동목표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	
3'	도입	< 콩이의 몸 소개하기 > 선생님이랑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중에 콩이가 있는데, 이 친구들도 5살이에요. 그런데 콩이는 우리 몸의 이름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사랑반 친구들이 지금 나의 몸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 안대어~”라고 말했더니 콩이가 사랑반에 놀러오고 싶데요. 콩이가 놀러오면 우리 몸의 이름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노래판에 콩이를 등장시킨다) “사랑반 친구들 안녕? 너희들이 우리 몸의 이름을 진짜 잘 안다고 해서 놀러왔어.” 사랑반 친구들이 콩이는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어깨라고 했어요. 맞니? 머리는 어디니? (선생님이 카드 제자리에 붙이기) 어깨는 어디니? (한 유아를 불러내어 붙여보도록) 아 우리 사랑반 친구들 아주 멋지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콩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콩이를 위해서 더 쉽고 재미있게 노래로 가르쳐주자~		*콩이-여자아이전신, 치마대신 바지를 입히고 파랑색이나 초록색 등의 옷을 입힌다. *노래판 *콩이가 말할 때에 신체이름카드를 물리게 붙인다.	
15'	전개	< 머리 어깨 무릎 발 > 듣기 >			

		• 노래 '머리 어깨 무릎 발'을 들어본다. - 노래가 잘 들렸나요? - 들어본 적 있는 노래니? • 노랫말을 떠올려본다. - 이 노래에 우리 몸 중 어디 어디가 나왔나요? (머리, 어깨, 무릎, 발 카드를 노래판에 붙인다) • 제목이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 그렇다면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목 카드를 노래판에 붙인다) < 머리 어깨 무릎 발 ♪ 부르기 > • 노래 '머리 어깨 무릎 발'을 불러본다. • 노래 '머리 어깨 무릎 발'을 빠른 속도로 하여 불러본다. - 사랑반 친구들이 그냥 부르는 건 벌써 너무 잘하니깐 이번엔 노래를 토끼처럼 빠르게 불러봅시다. • 노래 '머리 어깨 무릎 발'을 느린 속도로 하여 불러본다. - 이번엔 노래를 거북이처럼 느리게 불러봅시다. < 머리 어깨 무릎 발 ♪ 동작하기 > • '머리 어깨 무릎 발'의 동작하기 - 아참! 노래만 부를게 아니라 동작도 같이 해주면 공이랑 술이가 더욱 쉽게 알 수 있겠다. -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렇게 동작을 하면 될까? - 그럼 노래 맨 마지막에 귀 코 귀는 어떻게 하면 될까? • '머리 어깨 가슴 배'의 동작하기 - 이번에는 무릎이랑 발 대신에 가슴이랑 배를 넣어서 노래를 부르고 동작도 해 보는게 어때요? - 머리 어깨 가슴 배 가슴 배~ 이렇게 동작을 하면 될까? - 맨 마지막에 귀 코 귀는 그대로 귀 코 귀로 해봅시다. • '머리 어깨 가슴 배 손 허리' 동작하기 - 노랫말을 바꾸어도 사랑반 친구들은 너무 잘하는구나! - 이번엔 우리 '머리 어깨 가슴 배'라고 똑같이 하고 대신에 맨 마지막에 귀 코 귀 대신 손 허리~ 라고 해보는 건 어때요? - 머리 어깨 가슴 손 허 리~ 이렇게 동작을 하면 될까? < 직접 노랫말 바꿔 부르기 > • 바꾸고 싶은 노랫말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 선생님이랑 가슴, 배, 손, 허리로 노랫말을 바꾸어서 불러 보았지요. - 혹시 사랑반 친구들 중에서 직접 노랫말을 바꾸어 보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 친구의 몸을 짚으며 노래 부르기 > • 친구의 몸을 짚으며 노래를 부른다. - 우리 사랑반 친구들이 너무 잘하니깐 선생님이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걸 한 번 해볼게요. - 지금부터는 자기 몸 말고 친구 몸을 짚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요. 선생님 도와줄 친구? -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의 몸을 짚으면서 노래를 부를게요. 머리 어깨 무릎 발로 할까?	*컴퓨터, 노래파일 *소리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한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러본다. *속도를 바꾸어 부르는 것은 아이들이 어려워 하면 생각하고 보통 속도로 부르도록 한다. *속도를 바꾸어 부르는 것을 아이들이 즐거워 하면 작은 소리로 부르기도 해본다. *동작은 시범을 보여 주고, 피아노 반주대신 컴퓨터 반주를 틀어 앞에서 함께 한다. *직접 노랫말 바꾸기는 상황에 따라 생략하도록 한다. *한 아이를 앞으로
--	--	--	---

			- 짹짹 만나세요 - 짹짹의 머리를 짹짹보세요. 이번엔 어깨! 이번엔 무릎! 이번엔 발! 마지막으로 코코코코 - 너무 멋지게 잘 하네요. 그럼 이제 노래까지 같이 부르면서 해봅시다.	나오게 하여 아이의 몸을 짹짹 노래를 부르는 시범을 보인다.
2'	마우리		< 콩이에게 인사하기 > 아 참! 사랑반 친구들, 우리 너무 열심히 노래를 부르느라 콩이를 잊고 있었어요 선생님. 콩아~ 이제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알겠니? “네 선생님~ 사랑반 친구들아, 너무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우리 몸의 이름을 박사만큼 잘 알게 되었다! 어이쿠! 우리 엄마한테 오늘 사랑반 친구들과 놀았다고 자랑하러 가야겠다! 애들아 안녕~” 콩이가 너희들에게 아주 고마워하는구나. 오늘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동작도 열심히 해서 선생님도 사랑반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 배운 노래판은 선생님이 어디에 놔둘까요? 선생님이 음률 영역에 노래판을 놔 둘테니까 친구들과 다음에 또 불러보세요.	
자 평	기 가		새 노래 부르기를 위한 활동이었지만 아이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노래라 ‘동작하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활동 전반적으로 조금의 내 마음이 투영되어 활동이 조금 붓 떠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손을 드는 것과 앞에 나와서 해보는 것, 그리고 일어서서 짹짹을 만나는 것 모두가 불안했던 이유는 바로 나부터가 차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에 짹짹과 만나 동작을 할 때엔, 아이들은 집중력을 잃고 나는 통제력을 잃어 대집단 활동이라기보다는 자유선택활동에 더 가까워 보일 정도였다. 전에 신체활동을 할 때에 앉은 자리에서도 짹짹을 찾아 활동에 곧잘 참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가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의 모습이 어땠을지 완벽하게 추측할 순 없지만 교사 자체가 하나의 교재·교구가 되는 것이 유아교육이기에 늘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겠다. 한편 노래판에는 콩이라는 여자아이 전신을 붙인 채로 소개하고 그 나머지 여백에 신체이름카드를 노랫말에 맞게(개사 활동을 활발히 해볼 계획이었기에) 탈부착 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글을 잘 모르는 만 3세 유아들이기 때문에 신체 부분의 이름을 콩이 그림을 통해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시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신체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 지지 않거나(가슴-배-허리의 구분이 애매), 분명하게 신체이름카드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눈,코,입은 작는데 신체이름카드의 커서 눈, 코, 입 모두 별 차이 없이 그냥 얼굴 옆에 붙이는 수 밖에 없음)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동작을 하는 도중에 노랫말을 바꾸어서 동작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노래 파일은 원래의 가사가 크게 들려오고 있어 아이들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MR파일이 있었는데도 정신이 없어서 원래의 파일을 틀어버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작은 부분에 까지 신경을 써야 하겠다. 또한 내가 준비한 노래 파일의 전주가 조금 길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 전주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노래가 짧은 데에 비해 아이들이 노래 부르기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 전주가 나오는 시간이 어색하고 조금하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많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사랑반 아이들이 음악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즐겁게 활동에 참여해 준 것 같아 고맙고 다행스럽다.	
지도교사 조 언			♡ 수업 레세노라 두근두근하네 세심하게 자료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권해주어 흥미를 유발한 것은 좋았습니다. 고맙고, 피아노 반주로 잘 들어 두근두근하네 좋았습니다. 이번에 아끼웠던 것은 너무 많은 신체카드를 준비하여 마지막에 두근두근 노래를 할 때에 너무 많은 신체카드를 사용했네요	

단위 활동 계획안

실습생 : 이효빈

학급명	사랑반(만 3세)	지도교사	오소현 선생님	일시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생활주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주제	우리 가족	소주제	가족을 소개합니다.
활동명	사랑하는 엄마 아빠처럼		활동형태	게임(릴레이 게임)	
목표	• 나의 몸을 조절하여 움직인다. •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한다.				
교육과정 관련요소	• 건강 생활 영역 > 나의 몸 움직이기 > 이동하며 움직이기 • 사회 생활 영역 >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기				
활동자료	이야기 그림 자료, 아이의 외투, 어른 자켓, 어른 가디건, 반환점으로 쓸 자전거				
시간/활동명	활동 목표	활동 내용			자료 및 유의점
5'	도입	< 그림을 보고 이야기 나누기 > (이야기 그림 자료를 보여준다) •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어떤 이야기의 그림일까? - 은주는 매일매일 자기 옷 말고 엄마 옷을 입고 싶다고 떼를 쓰는 아이예요. 오늘도 유치원에 가기 전에, 옷장의 옷을 다 꺼내 어질러 놓고 엄마의 빨간 원피스를 입고 싶다고 영영 울고 있네요. 하지만 엄마는 은주가 점점 더 자라서 엄마만큼 큰 어른이 되면 그때 더 예쁜 옷을 사주시겠다고 약속 하셨어요. 그 대신에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엄마 옷을 입는 게임을 하라고 유치원에 옷을 보내 주셨어요. (어른 옷과 아이의 외투를 보여준다) - 이 세 가지 옷 중에 어느 것이 은주 어머니가 보내주신 어른의 옷일까요? - 어른의 옷과 친구들의 옷은 무엇이 다른가요? -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옷을 입어 본 적이 있나요?			*이야기 그림 자료 *어른 자켓, 어른 가디건, 아이의 외투
22'	전개	< 게임 소개하기 > • 게임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 오늘 할 게임의 이름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처럼'입니다. - 먼저 한 줄로 멋지게 줄을 섭니다. - 그리고 한 친구씩 어른 옷을 입습니다. 여자 친구들은 엄마의 분홍 가디건을 입고, 남자 친구들은 아빠의 양복 자켓을 입어 봅니다. - 어른의 옷을 입은 친구들은 자기 자전거까지 달려가서 자전거 뒤로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달려 옵니다. - 달려 온 친구들은 학생 선생님이랑 하이파이브를 하고 뒤의 친구들에게 옷을 예쁘게 벗어줍니다. - 옷을 벗어주고 난 다음에는 기다리는 줄에 앉습니다. • 게임의 시범을 보여주기 - 선생님의 말에 귀를 쫑긋 하고 있는 □□□ 한 번 나와 보세요. □□□ 이 친구들에게 시범을 보여 줄 거예요.			*자전거 *반환점에 미리 자전거를 놔둔다. *시범을 보이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기다리는 자리와 줄서는 자리를 테이프로 바닥에 표시해둔다.

		• 게임의 방법과 약속을 이해한다. • 나의 몸을 조절하여 움직인다. • 즐겁게 게임에 참여한다.	< 게임의 약속 정하기 > • 게임을 하며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한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바로 게임 약속인데요, 오늘 게임하면서 약속 잘 지키는 친구 딱 한명만 약속대왕으로 뽑아서 칭찬해 줄 거예요. - 첫 번째 약속. 하이파이브 하고 나서 옷을 벗어줄 때에 옷을 예쁘게 벗어 줍니다. - 두 번째 약속. 달리기를 한 친구들은 친구들 응원을 합니다. - 세 번째 약속. 달리기 하기 전 기다릴 때와 응원을 할 때에는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합니다. < 게임 하기 > • 게임의 방법과 약속을 지키며 게임을 한다.	
3'	마무리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 평가하기 > - 엄마 아빠 옷을 입고 달려 보니 어떤 것이 재미있었나요? - 엄마 아빠 옷을 입고 달려보니 어떤 것이 힘들었나요? - 사랑하는 엄마 아빠처럼 어른이 되어야 어른 옷을 더욱 멋지고 예쁘게 입을 수 있겠구나 - 사랑하는 엄마 아빠처럼 어른이 되기 위해선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 일을 많이 도와드려야해요 - 오늘의 약속 대왕은 누구일까요? <함께 정리하기> - 정리를 도와줄 친구 있나요? - 고마운 ○○○가 자전거를 제자리에 갖다놓아 주세요.	* 엄마 아빠처럼 멋진 어른이 되길 격려한다.
자 평	기 가	게임 활동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활동 중 하나인 것 같다. 이번 게임 역시 자료의 여건과 아이들의 수준, 재미 모두를 고려하느라 계획만 3번이나 바뀌었다. 또한 다른 활동에 비해서 도입역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억지스럽게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아마 도입 후 게임 방법에 대한 설명과 시범, 지켜야 할 약속 까지 모두 알아 본 후에 그제서야 게임을 시작해야 하기에 내가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다. 아이들과 강당에 간 후 도입 그림 자료를 보았는데, 다행히 교실이 아닌 곳에서도 아이들이 집중은 해 주었지만 아쉽게도 내 그림실력이 닿아주지 않아 아이들이 그림으로부터 이야기를 유추해내진 못했다. 내가 나눌 이야기상황에 더 맞는 그림이나 사진이 있었다면 찾아서 인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또한 어른의 옷을 못 입게 하는 은주어머니가 게임을 해보라고 어른 옷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도 계획할 때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활동을 전개해보니 스스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이상했다. 이게 바로 억지스러운 도입이라는 걸까... 게임 활동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교사의 발화 양 인 것 같다. 도입에 이어 곧바로 게임의 방법과 약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야하니 교사의 발화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사의 긴 발화에 집중하며 동시에 그 과정에서 게임 규칙을 숙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 두 명이 시범을 보였음에도 게임 방법을 모르겠다고 손을 드는 아이가 있어서 참 난감했다. 또한 '게임은 디테일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 하겠다는 생각까지만 했는데, 아이들이 다음 아이에게 옷을 전달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실제 상황에서의 변수를 제외하고서라도 나의 '릴레이 방식'이란 계획은 조금 무책임했다.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수가 서로 맞지 않는데 각자 입는 옷이 다르다면 그 순서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생각을 해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난 무작정 출발만 시키다 보니, 나중엔 어떤 아이가 돌지 않았는지 내가 아이들에게 물어 확인을 해야 할 정도로 엉성했다. 한편 아이들에게 한 세 가지 약속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다.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이유로 굳이 약속판을 만들지 않았는데 교사의 발화만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다른 시각적인 방법으로라도 약속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판을 게임		

상황 내내 보여주었어야 했다.

게임의 배경음악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음원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음원의 소리가 크지 않아 게임 중간 중간에 큰 감당에 짧은 정적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잔잔하게 흥을 돋궈줄 음악이 틀어져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앞으로의 게임 활동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디테일을 기억하며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③ 10명당 10분씩 하루에 두 번 연습했습니다.

게임 활동이 재미있는 아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10명당 10분씩에 걸린 생각과 저를 일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지도교사
조 언

단위 활동 계획안

실습생 : 이효빈

17 단

학급명	사랑반(만 3세)	지도교사	오소현 선생님	일시	2012년 5월 18일 ^{17일} 월 ^목 요일
생활주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주제	우리 가족	소주제	가족의 물건
활동명	누구의 물건일까요?		활동형태	이야기 나누기	
목표	· 가족이 쓰는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교육과정 관련요소	· 사회생활영역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 가족과 협력하기 · 언어생활영역 > 말하기 > 생각과 느낌 말하기				
활동자료	퀴즈 판, 가족 ppt 자료, 컴퓨터, 빔 프로젝트, 사랑반 물건 (크레파스, 풀 가위, 휴지)				
시간/활동명		활동 목표	활동 내용	자료 및 유의점	
3'	도입	· 교실에서 내가 쓰는 물건을 안다. · 가족의 물건들에 관심을 가진다.	< 교실에서 내가 쓰는 물건 알아보기 > - 교실에는 사랑반 친구들이 쓰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 그릴 때 쓰는 크레파스도 있고, 만들기 할 때 쓰는 풀 가위도 있고 코푸는 휴지도 있고. - 교실에는 또 친구들의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 사랑반 친구들이 지내는 교실에는 사랑반 친구들의 물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사는 우리 집에는 가족들의 물건이 있어요.	* 사랑반 물건 * 크레파스, 풀, 가위, 휴지는 사랑반의 실물을 제시한다.	
10'	전개		< 가족 구성원 떠올리기 > (ppt자료를 제시한다) -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이건 선생님 어렸을 때 가족사진이에요. 선생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 가족 중에는 엄마, 아빠, 오빠나 형님, 언니나 누나,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이 있지요. - 사랑반 친구들은 누구와 사나요? < 가족의 물건 알아보기 > · 엄마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고 엄마의 물건을 말한다. - 엄마는 집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 그럼 엄마는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 - 앞치마는 엄마만 입는 것일 까요? · 아빠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고 아빠의 물건을 말한다. - 아빠는 집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 그럼 아빠는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 ·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고 나의 물건을 말한다. - 너희들은 집에서 무엇을 하니? - 그럼 너희들은 어떤 물건이 필요할까? · 다른 가족들이 쓰는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엄마랑 아빠 말고도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이 있었지요. -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눈이 잘 안보이신데요. 그럼 어떤 물건이 필요하실까? -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는 허리가 아파서	* ppt자료, 컴퓨터, 빔 프로젝트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 컴퓨터는 집에서 누가누가 쓰나요? - 엄마 말고도 화장을 하는 가족은 누가 있나요? < 가족물건 퀴즈 > - 사랑받 친구들이 대답을 씩씩하게 잘해서 선생님이 이번엔 퀴즈를 내볼게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 속의 물건이 누구의 물건인지 맞춰 보는 거예요. - 가족물건 퀴즈를 한다.	* 퀴즈 판
2'	마무리	- 오늘 이야기 나누기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생각나나요? - 이 퀴즈 판은 선생님이 어느 영역에 놓아줄까요?	

자
평
기
가

이야기 나누기는 활동 자체가 어렵게 느껴져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애를 먹었다. 특히 유아들의 반응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아들의 반응이 주가 되는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교사의 발화가 많으면 안 되니 유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개방적인 질문을 했을 때엔 유아들이 대답하기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고민스러웠다.

‘이야기’를 나누는 데에 있어서 매체를 어떤 것으로 택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무척이나 고민이 많이 되었다. 매체 선정에 잘못할 경우 자칫하면 이야기 나누기가 다른 어떤 활동으로 변질되어 버릴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난 결국에 사진 자료와 수수께끼 판을 사용하였는데 사실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는 매체이다. 원래 여러 가지 가족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감상한 후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도 매력적인 사진자료들을 구할 수가 없었다. 거의 하루가 고박 넘는 시간동안 사진 자료만 찾았지만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나는 더 미궁 속에 빠지는 것 같았다. 우선 만 3세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야기 나눌 주제와 사진이 좀 더 분명하게 연결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진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 있지만 모든 사진 속 등장인물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 3세 아이들이 이 모두가 ‘가족’을 뜻하며 우리 집에는 우리 가족이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겨났다. 이렇게 해마다 도착한 곳은 한 연에인 양교부부의 가족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매체로서 적당했던 것 같지는 않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얘기에서 그 구성원들이 하는 일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그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 알아보자는 나의 계획에도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가족 구성원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까지는 이야기가 나누기가 가능했는데 그것이 ‘가족의 물건’으로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내가 얼렁뚱땅 연결을 시켰는데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다.

의외로 엄마에 대한 다양한 답변이 나왔던 것에 비해 아빠에 대한 답변은 내가 예로 언급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대답들만 나왔다. 차라리 우리 아빠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활동을 준비해줄 걸 하는 생각도 들어 아쉬웠다.

한편 가족이 생활주제 일 때에는 반 아이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르니 항상 주의하여서 아이의 마음이 혹시나 은연중에라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활동에서는 내가 제대로 주의를 기울였는지 모르겠다. 다양한 가족을 언급하고 싶었으나 사진자료의 한계와 나의 당황스럽고 급한 마음에 엄마와 아빠 위주로만(그것도 거의 엄마 위주) 활동이 전개된 것 같아 아쉽다.

지도교사
조 언

이 선생님! 오늘 라쿤도 두리 하였습니다.
 이 선생님 평가를 익히게서, 제가 넘 부끄러워합니다.
 유익한 강좌 배워보는 단계로 수업이 많이 소중하게 감사...
 나의 과수정제 배서 수업에 대해 고민한, 이차시연과
 동공이 신명해서 수업이 좋았다는 뜻으로, 정리가 잘되어
 이차시연이 배워본다. 이차시연이 좋았습니다.
 이차시연이 배워본다. 이차시연이 좋았습니다.